‘타지역에 펑펑’ 돈 새는 광주…복합쇼핑몰 ‘주목’

1분기 소비지표 광주·울산·대구만 감소…대전신세계, 역외 구매 50% 유입

광주신세계, 1000억 소비 유출…“복합 체류공간 조성, 소비유출 막아야”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차세대 복합 체류공간으로 떠오른 대전신세계가 개점한 지 오는 8월이면 1년이 된다.

대전은 광주와 같이 즐길거리가 부족한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도시로서 자주 비교 대상이 됐다.

인구 규모 역시 지난달 기준 광주 143만6916명, 대전 144만9360명 등으로 비슷하다. 다른 시·도를 잇는 교통 관문 역할을 한다는 점도 닮았다.

지역에서 20여 년 만에 백화점 출점을 단행한 ‘대전신세계 아트&사이언스’(대전시 유성구)는 현지법인으로서 민간 소비의 수도권 쏠림을 막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광주와 전남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분기보다 각각 2.2%, 2.3% 감소했다.

코로나19 진정 국면에 접어든 올해 1분기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소매판매 실적이 줄어든 도시는 광주(-2.2%)와 울산(-2.0%), 대구(-0.6%) 등 3곳이다.

반면 전년보다 소매판매액 지수가 증가한 도시는 서울(3.7%↑)과 부산(2.1%), 대전(2.0%), 인천(1.7%) 등 4곳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처럼 대도시의 소비지표 희비가 엇갈린 원인을 ‘역외 유출’에서 찾고 있다.

대전신세계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368억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분기 광주신세계 매출(426억원)의 86.6% 수준으로, 신세계백화점 중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대전 매출이 광주를 곧 따라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하다.

대전신세계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사 카드매출을 분석해보니 대전과 세종을 제외한 다른 지역 고객의 매출 비중이 50%를 넘겼다. 역외 고객 수 비중은 54%로 늘어난다.

반면 광주·전남 회원 고객이 지난 한 해 다른 지역 신세계백화점에서 쓴 금액은 1000억원을 넘겼다. 특히 해외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부산 센텀시티 등에서 쓴 금액은 역외 유출 소비의 80%가 넘는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중 세 번째 규모로 문을 연 대전신세계로 유출된 광주신세계 고객들의 소비는 개점 첫 달 만해서 50억원이 넘었다.

■대전신세계 운영 개요 〈자료:법인 공시 등〉

개장	2021년 8월
규모	지하 5층, 지상 43층 연면적 28만4100㎡(8만6000평)
투자액	7150억원
매출액	올해 1분기 368억7100만원
역외소비 유입비중	50%
고용	직영 인력 총 576명 중 488명 신규채용 (지역채용 386명 포함) 협력사 직원 등 총 4000명
특징	4성급 호텔·카이스트 협력 과학관 1만1200㎡ 옥상정원·1만3900㎡ 수족관

연면적 28만㎡(8만6000평) 규모 대전신세계는 내년이면 개최 30주년을 맞는 대전 엑스포(세계박람회) 인근 부지에 조성됐다. 대전신세계는 대전시 ‘대전엑스포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민자유치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2016년 4월 설립된 현지법인이다.

대전신세계 조성에 들어간 투자액은 7150억원에 달한다.

193m 높이 전망대와 4성급 신세계 브랜드 호텔 ‘오노마’, 카이스트와 함께 조성한 과학관, 센텀시티 3배인 1만1200㎡ 규모 옥상정원, 1만3900㎡ 수족관, 충청권 최초 ‘스포츠 몬스터’ 등을 갖췄다.

오는 8월 개점 1주년을 맞는 ‘대전신세계 아트&사이언스’ 전경. 〈대전신세계 제공〉

대전신세계는 시로부터 땅 5만1700㎡를 빌려 매년 127억원 가량을 임차료로 내게 된다.

대형 유통시설은 소상공인 상권을 지켜야한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민간 소비 유출을 막고 고용효과가 확실하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대전신세계의 경우 직영 인력 총 576명 가운데 488명은 신규 채용됐다. 신규 직원의 79.1%에 달하는 386명은 지역 인재로 채용됐다. 협력 사원을 다하면 대전신세계 고용 인력은 4000명으로 불어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해외명품 시즌오프 할인전

27일부터 최대 50% 할인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해외명품 할인전(시즌오프)을 오는 27일부터 진행한다.

해외패션 브랜드별로 할인율이 20%에서 많게는 50%에 달한다. 여성의류 할인 행사도 다음 달 중 순차적으로 열린다.

‘시즌 오프’는 계절이 바뀌기 전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벌이는 할인전을 말한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여름을 앞둔 5월이나 겨울을 맞는 11월에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해외명품 가운데서 점포 1층에 위치한 페레가모 등이 할인전 포문을 연다. 이 브랜드는 27일부터 30%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내놓는다.

앞서 알렉산더맥퀸은 이달 20일부터 30% 판매를 벌이기도 했다. 같은 층 오프화이트는 다음 달 3일부터 30%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

점포 2층에서는 27일부터 오일릴리와 비비안웨스트우드가 20~30%, 코치는 30~50% 시즌오프 행사를 진행한다.

토리버치는 6월1일부터 30%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선보인다.

이외 다양한 여성의류 브랜드들은 다음 달 중에 순차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한다.

2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1층 ‘알렉산더맥퀸’ 매장에서 ‘시즌오프’ 할인 행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1일부터 산드로, 마주가 20% 할인 판매를 하며, DKNY는 3일부터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시스템, SJSJ,, 오즈세컨 등 브랜드도 6월 중순부터 20~30% 시즌오프가 예고됐다.

홍기창 롯데백화점 광주점 영업기획팀장은 “해외패션 브랜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복소비’로 백화점의 매출을 견인해 오고 있고 최근에는 명품을 구매하는 문화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연스러워지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해외패션 브랜드를 합리적으로 구매하기에 시즌오프 행사가 진행되는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모바일 영수증 받고 포인트 적립 받으세요”

이마트,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연간 최대 7만원…월별로 지급

이마트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고객에게 자동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로 했다.

이마트는 지난 23일부터 탄소중립 실천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점포에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가 연계된 상품을 구매하면 포인트가 쌓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종이 대신 모바일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포인트가 적립된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받으려면 먼저 홈페이지(cpoint.or.kr/netzero)에 가입해야 한다.

이마트에서 포인트를 적립받는 방법은 ▲전자영수증 발급 회당 100원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 회당 10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 회당 2000원 등이다.

‘그린카드’는 친환경제품 구매 때 에코머니 포인트가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말하며, 각 은행별로 발급 가능하다. 이마트는 신선·가공·세제·생활용품 등 ‘그린카드’와 연계된 다양한 친환경 인증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총 7만원 상당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이달 중 홈페이지(cpoint.or.kr/netzero)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매달 월별로 현금 또는 신용카드사 포인트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형태준 이마트 지속가능혁신센터장은 “고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 적립 시스템 구축에 앞장섰다”며 “다양한 친환경 사업 확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무지구(상가매매)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